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은혜

본문: 창세기 38:1-1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g_UER4nqi70?si=Y0YREX8dbbbl9Ptb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창세기 38장은 요셉을 노예로 판 이후, 깊은 죄책감과 중압감에 시달리던 유다의 안타까운 영적 추락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건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언약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처럼 죄책감을 철저히 이용해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영적인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동화된 유다의 가정에는 죄가 대물림되었습니다.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연달아 거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처참한 실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엎드리기보다는, 며느리 다말을 타하며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는 '영적 감옥'에 갇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무기 삼아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파멸의 길을 택한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뒤로 숨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라는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흉악한 죄악의 정죄도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삶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누구와 가까이하며, 가나안 땅에서 누구의 딸을 맞이하여 동침합니까? (창 38:1-2)
2. 유다의 차남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한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창 38:9-10)

[삶의 적용]

1. 내가 지은 죄나 실수 앞에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피하고 숨었던 적은 없습니까?
2. 나를 자격 없다고 정죄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물리치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무너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